

부패 수준의 측정과 인구 통계학적 변수의 영향

Survey-based Measurements of Corruption Levels: Do Demographic Factors Significantly influence?

박 흥 식(Heungsik Park)*·장 지 원(Gee Weon Chang)**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demographic factors' influence on survey-based measurements of corruption levels. If the factors significantly influence people's experiences with or perceptions of corruption, demographic variables should be controlled when measuring the extent of public officials' corruption. The study asked three research questions: 1) Do demographic factors significantly influence the respondents' experiences with and perceptions of corruption? If so, what demographic factors do so? 2) Does the demographic factors' significant impact depend on the items mentioned in survey questions concerning levels of corruption? 3) To what degree do demographic factors account for respondents' experiences with or perceptions of corruption? Based 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we generated four hypotheses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graphic factors and the respondents' experiences with and perceptions of corruption levels. We tested these hypotheses by using data collected from the Kore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on public sector corruption in South Korea. The effects of demographic factors which were found significant were reported and their implications were discussed. This study adds to what is known about the relationships of demographic factors and both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corruption by examining demographic variables' influence in survey-based measurements.

Key Words : 부패 수준의 측정(Measurement of corruption levels), 인구 통계학적 요인(demographic variables), 국민권익위원회(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1. 서론

정부기관, 국제적인 조직이나 컨설팅 회사, 연구소, NGO 등에 의한 부패 수준의 측정과 결과 발표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부패 그 자체의 측정보다는 부패 경험이나 존재에 대하여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생각하는가를 묻는 서베이 조사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부패 측정 척도 체계나 질문 항목에 비판적 논의는 그 동안 적지 않았으나 (예, Ko & Samajdar, 2010; 황성돈, 2004), 피조사자의 인구 통계학적 측면에 대해서는

*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전문연구원

거의 그렇지 못했다. 선행 연구들은 인구 통계학적 요인이 부패 인식, 윤리적 민감성 (ethical sensitivity), 판단, 결정, 태도나 인식 등에 유의한 영향 변수라고 말한다 (Sparks & Johlke, 1996: 873). 만일 그렇다면, 인구 통계학적 요인들이 서베이 방법에 의한 부패 경험이나 인식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지 않으면, 정확한 측정이나 결과의 비교는 어렵다. 한국 정부는 부패 수준을 측정, 결과를 공표하여, 반부패 노력을 촉진하는 정책도로 활용한다. 이러한 점에서 한 가지 의문은 검토가 필요하다. 인구 통계학적 요인들이 부패 수준의 측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그렇다면 얼마나 그런 것인가? 이다. Emerson & Conroy (2004: 169)는 윤리적 인식의 시차적 변화를 연구하면서, 윤리적 태도가 인구 통계학적 변수들과 관계가 있다는 선행 연구들의 연구 결과를 인용, 이들 변수에 대한 통제 후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나 국무총리실은 서베이 방법을 사용, 공공기관의 부패 수준을 측정하고, 결과를 업무성과, 평가 지표로 활용한다. 그럼에도 인구 통계학적 요인의 영향이 유의한지, 얼마나 그런지에 대한 확인이나 통제, 이를 고려한 표본의 구성 노력 등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첫째 부패 수준 측정 표본의 인구 통계학적 요인이 부패 경험이나 인식도 측정에 유의한 영향 변수인가, 그렇다면, 어떤 요인이 그러한가? 둘째, 부패 측정 문항에 따라 이들의 영향은 다른 것인가? 어떤 문항에서 그런가? 그리고 셋째, 일반적 인구 통계학적 요인들의 설명력은 얼마나 되는가? 에 대한 답을 모색하였다.

만일 인구 통계학적 변수들의 영향이 유의하다면, 서베이 방법에 의한 부패 수준의 측정은 이들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야 정확한 측정과 기관이나 부처, 지방정부 간, 같은 기관, 부처라도 지난해와 금년도 간의 차이 비교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부패 정도 측정 결과로부터 인구 통계학적 특징에 따른 영향을 배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전의 연구와 차별된다. 첫째, 부패 측정 지표의 체계나 척도 항목의 타당성 논의가 아니라 인구 통계학적 요인의 부패 측정 영향에 대한 것이다. 연구 결과가 갖는 의미는 부패 수준 측정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응답자 특징으로의 확대이다. 둘째, 실천적 측면에서 정확한 부패 측정을 위한 표출 방법에 대한 기여이다. 목적이 부패 통제로 비록 긍정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평가나 비교는 피평가자에게 평판이나 권력, 자원 배분 등에 실질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제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측정 지표 체계의 타당도 확보 외에 부패 수준 평가나 결과 비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표본을 구성하는 작업도 그 하나이다. 서베이 방법을 통한 부패 수준의 측정을 반부패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때, 특히 중요하다.

II. 부패 수준의 측정과 인구 통계학적 요인의 영향

1. 부패 수준의 측정과 서베이 방법의 사용

World Economic Forum (이하 WEF)은 매년 각국의 경쟁력 등급에 관한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를 작성, 발표하면서, 부패지수(corruption index)를 하나의 하위 지표로 사용한다. 이 지표는 기업 간부들을 대상으로, 수출입 허가, 비즈니스 라이선스, 환전 통제, 세액 산정, 경찰 보호, 용자 신청과 관련한 변칙적인 추가적 돈 지불의 정도가 얼마나 있는가를 7점 척도로 묻은 다음, 해당 국가에 대한 전체 응답자들의 평균을 구해 계산된다.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이하 IMD)는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에서 부패지수를 공개한다. 50여 개국에 이르는 비즈니스 매니저를 대상으로 한 서베이 조사의 결과이다. Political and Economic Risk Consultancy(이하 PERC)의 부패지수도 서베이 결과로, 부패 존재의 인식을 가리킨다. WEF, IMD, PERC의 부패지수는 모두 관련 분야에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 분석가(country experts or analysts)의 평가에 기초한 것이다. Political Risk Services Incorporated(이하 PRSI)도 1982년 이래 매년 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ICRG)를 발간한다. 부패지수는 여기서 국제 투자에 다른 리스크 하위 지표의 하나로 조사, 작성된다. 외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정부 고위직 공직자들이 얼마나 특별한 대가를 받을 원할 것 같은가? 수출입 라이선스, 환전 통제, 세액 산정, 경찰 보호, 용자 등과 관련 뇌물 형태의 불법적 돈 지불이 일반적으로 얼마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가? 등의 질문을 통해 계산된다.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은 부패를 경제와 비즈니스에 위협 또는 장애 요인으로 간주해, Business International Index(BI)를 조사해 발표한다. 부패지수는 하위 지표의 하나로 각국을 대상으로 기업 간부들로 하여금, 비즈니스 거래가 '부패 또는 의문스러운 돈 지불(corruption or questionable payments)'와 얼마나 관련된 것인가를 10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해, 계산된다. ICRG와 BI의 부패지수도 해당 분야에 식견을 가진 전문가, 컨설턴트의 평가에 의한 것이다.

반부패 국제 NGO Transparency International(이하 TI)은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이하 CPI), Bribe Payers Index(이하 BPI), Global Corruption Barometer(이하 GCB)를 조사해 공개한다. CPI는 국제기구, 컨설팅 회사들이 수행한 다양한 서베이, 전문가 평가 가운데 부패 관련 항목만을 집계하여 지수로 계산한 것이다. 2010년 CPI는 10개 기관이 생산한 공공부문 및 정치 분야 부패 행위의 정도, 즉 빈도와 규모에 관한 것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6개 의견 조사(business people opinion surveys)와 각국 부패 수준에 대한 7개 전문가 평가(assessments)를 바탕으로 계산되었다. 2008년 BPI는 비즈니스 고위 간부들(senior business executives)에게 관련 국가 간의 부패 순위를 평가하고, 이들 국가의 기업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비즈니스 할 때 뇌물에 얼마나 자주 연루되는가를 서베이 방식으로 조사한 것이다(Transparency

International, 2008: 4). GCB도 사람들의 부패 경험과 인식(public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corruption)에 관한, 즉 의견 조사(public opinion survey)로 작성된다.

개별 국가에도 부패 정도 조사 사례가 적지 않다. 싱가포르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이하 CPIB)는 매년 외국 기업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활동에서 뇌물이나 부패가 얼마나 있었는가를 10점 척도(10점일수록 깨끗하다)로 서베이(executive opinion survey) 한다. 미국 윤리연구소 Ethics Resource Center(이하 ERC)는 연방정부의 윤리적 실태를 수차례 조사, 발표한 바 있다(예, Ethics Resource Center, 2008). 한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표 체계를 개발, 부패지수를 조사하고 등급 정보를 공개한다. 서울특별시도 청렴지수의 하위 지표로 부패지수를 조사, 발표했던 바 있다(황성돈, 2004). 그러나 한국과 같이 공공기관 부패 등급 점수 계산과 공개를 통해 정책적으로 기관 간 경쟁적 반부패 노력을 촉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반부패 전략의 목표 설정과 효과적 집행을 위해서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 어떤 분야에서 가장 심각한가? 지난해보다 나아졌는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획득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부패는 본질적으로 관찰이 가능하지 않다. 적발 또한 극히 일부에 제한되는 사회현상으로, 사실상 정확한 측정 방법이란 없다. 적발과 처벌 기록이 유일한 사실 정보이나, 부패의 극히 일부만을 가리킨다. 이를 부패 측정 기준으로 삼는 경우, 해당 기관이 적극적으로 부패 행위 적발에 나설수록 오히려 그만큼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는 문제가 있다. 전화조사나 인터뷰 등 서베이 방법은 부패가 법규 위반 행위이기 때문에 피조사자들이 응답을 꺼려 자료 획득 자체가 어렵다. 직접 경험을 말한 경우라도 답변은 부정직하거나 특정 의도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고, 부패 실태에 대한 인식은 응답자 개인의 주관적 판단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일뿐 현실이 그런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서베이 방법 사용에는 측정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접근이 필수적이다. 기존의 부패 측정 지표체계, 각 지표 항목의 타당성에 대한 비판도 이러한 이유에 기인한다(예, 황성돈, 2004). 그러나 지표체계가 타당해도 응답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징이 다르면, 측정 결과는 부패 수준이 아닌 이들의 특징 효과가 될 수 있다.

2. 지표 체계의 항목

서베이 방법에서 부패 수준 측정의 공통적 척도 항목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부패의 경험이다. 예를 들어, TI의 GCB는 ‘지난 1년 동안 당신 또는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중 누가 어떤 형태이든 뇌물을 다음 기관이나 조직 어느 한 곳에 준 적이 있는가? 질문한다(Rialno, Heinrich & Hodess, 2010: 39). 응답자가 직접 경험에 대한 대답은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부패 행위를 얼마나 보았는가를 묻기도 한다. 즉 간접 경험의 질문이다. 미국 ERC 조사는 공직자들이 직장에서 비윤리적 행동(misconduct), 즉 뇌물(bribes), 절취(stealing), 문서변조(alteration), 이해충돌(conflicts of interest), 남용(abusive behavior), 거짓말(lying) 등이 일어나는 것을 얼마나 자주 보

았는가? 그 빈도를 묻는다(Ethics Resource Center, 2008). 다른 하나는 부패 존재에 대한 인식으로, 사람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부패를 열거하면서, 얼마나 광범위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물어,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지수 측정 문항도 경험과 인식의 조합이다(국민권익위원회, 2010a,b; 황성돈, 2004). 예를 들어, ‘2010년도 공공기관 외부 청렴도 설문지’ 부패지수 측정 항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외부 청렴도 측정 모형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부패지수 (0.483)	경험 (0.613)	① 금품 제공 빈도 (0.246)
		② 금품 제공 규모 (0.227)
		③ 향응 제공 빈도 (0.182)
		④ 향응 제공 규모 (0.189)
		⑤ 편의 제공 빈도 (0.156)
	인식 (0.387)	① 금품/향응/편의 제공 인식 (0.199)
		② 금품/향응/편의 제공 관행화 (0.204)
		③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 (0.199)
		④ 부당이득 위한 기관/직위 악용 이득 (0.199)
		⑤ 부당이득 위한 알선·청탁 (0.199)

주: 괄호 안 숫자는 “학계,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평가 대상기관 감사 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에 의해 산출”된 해당 항목의 가중치이다.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10b), pp.6-7,10.

부패 경험은 “선생님께서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년간 □□(하위 기관명) 기관 공무원(직원)에게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한 경험이 있습니까?” 해당 경험이 있는 경우, 모두 말해달라고 한 후, 돈, 상품권, 선물 등의 금품, 1인당 3만원이 넘는 식사, 술대접 등의 향응, 숙박시설 제공 등의 편의의 항목을 제시하고, ‘금품, 향응, 편의 제공 경험’ 있다면, 모두 몇 번 정도 제공하였는가, 제공한 금품, 향응의 규모는 얼마 정도였는가, 언제, 어떤 이유로 제공하였는가를 물었다. 반면 인식지수는 “OO 업무 담당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또는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직원)들이 민원인에게 금품이나 향응 혹은 각종 편의 등을 관행적으로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업무 담당자가 일처리를 하면서 지연, 혈연,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신이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이용했다고 생각하는가? 을 묻는다. 각 항목은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 제21238호, 2008.12.31 일부 개정)’ 중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6조 지연, 혈연, 학연 등에 의한 특혜의 배제 등을 반영한다. 외부 청렴도는 측정 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과 접촉 경험이 있는 민원인, 공직자 등에 대한 전화 설문 조사로 측정된다(국민권익위원회, 2010b: 17,19).

3. 인구 통계학적 변수의 영향

인구 통계학적 요인들의 윤리적 인식 영향에 관한 가장 많은 연구는 성별(gender)에 대한 것이었다(Emerson & Conroy, 2004: 169; Ekin & Tezolmez, 1999: 18). 하지만 연구 결과는 남녀 간 윤리적 행동이나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하여 어떤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다(Wahn, 2003: 121; McDaniel, Schoeps & Lincourt, 2001: 245). Valentine et al. (2009)은 이전의 연구결과는 여자들이 남자보다 윤리적으로 일한다는 것이었으나 결과는 엇갈린다고 말한다. Wahn (2003: 121-122)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여자들이 보다 윤리적이다’와 ‘둘 사이에 차이가 없다,’ 두 가지가 전형적(typical)이라고 한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여자는 윤리적 인식, 판단, 민감도, 의도 등에서 남자보다 더 윤리적이었다(Valentine et al., 2009; Ameen et al., 1996; Whipple & Swords, 1992; Chonko & Hunt, 1985). Ruegger & King (1992)도 미시시피 대학 비즈니스 스쿨 학생 2,19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0가지 윤리적 행동 중 6가지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윤리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Deshpande (1997)은 비영리 조직의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성별, 나이, 교육 수준과 같은 인구 통계학적 요인들이 비즈니스에서 특혜를 받기 위한 선물과 편익(gifts and favors) 제공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하였는데, 여성 관리자일수록 선물과 편익을 제공받고 특혜를 주는 것(preferential treatment)을 더 비윤리적으로 생각하였다. Ekin & Tezolmez (1999: 24)는 터키 관리자들(Turkish managers)을 대상으로 개인적 요인이 윤리적 판단과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사하였고, 여성 관리자일수록 윤리적 점수가 더 높았다. 하지만 Mujtaba & Kaifi (2010), Nyaw & Ng (1994), McCabe, Ingram & Dato-on (2006) 등의 연구에서는 성별이 윤리적 인식(ethical perceptions)에 유의한 영향 요인이 아니었다. 반면 Wahn (2003)는 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남녀 간 비윤리 행동 의도의 차이에 대한 연구에서, 남자일수록 그러한 의도가 오히려 더 큰 것을 발견하였다.

연령도 윤리적 인식, 태도 등의 중요한 예측 변수이다(Emerson & Conroy, 2004: 170). Serwinek (1992)는 나이가 많을수록 몇 가지 항목에서 윤리적 기준(ethical standards)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Deshpande (1997)의 연구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특혜를 기대한 선물과 편익(gifts and favors) 제공을 보다 더 비윤리적인 것으로 생각하였다. Valentine et al. (2009)은 나이가 많을수록 윤리적 의도가 증가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Browning & Zabriskie (1983) 연구에서는 젊은 관리자들도 보다 윤리적 관점(viewpoints)을 갖고 있었다. 반면 Callan (1992)의 연구에서는 나이가 응답자들의 윤리적 태도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대한 연구 결과도 엇갈린다. Swenson-Lepper (2005: 226)는 학력이 개인의 윤리적 민감도(ethical sensitivity)에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인이라고 말한다. Browning & Zabriskie (1983)는 구매 담당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특별한 해

택을 기대한 선물이나 편의 제공을 보다 비윤리적 행동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Deshpande (1997)는 관리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요인이 윤리적 행동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했고, 비윤리적인 행동 17가지 항목 가운데 단 한 가지, 즉 비용을 10% 부풀리는 행동에 대해서만 응답자들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비윤리적으로 생각하였다(p.83). Mujtaba & Kaifi (2010)는 214명의 아프간 미국인(Afghan-Americans)의 비즈니스 윤리 인식에 대한 연구 결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윤리적 성숙도(ethical maturity)가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Serwinek (1992) 연구에서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소득 수준과 부패 인식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Tang & Chiu (2003)는 211명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이 비윤리적 행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국가를 분석단위로 한, TI의 CPI 조사 결과에서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부패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인용하면서, 개인도 소득이 높을수록 비윤리적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 검증하였다(p.17). 그러나 유의한 관계는 없으므로 나타났다. Ekin & Tezolmez (1999: 24)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연구에서도 소득(income)은 유의하지 않았다.

4. 가설

부패 측정의 척도를 고려하여, 가설은 경험 및 인식 차원으로 구분, 설정하였다. 경험 차원에서의 부패 수준 측정은 주로 금품 등의 제공과 금품의 규모에 관한 것이다. 한국은 남성 지배적 문화의 지속적 약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하다. 특히 금품이나 향응, 편의 제공 등 법규 위반 행동은 남자의 사회활동 일부로 간주된다. 또 제공 금품의 규모는 소득 수준의 크기를 배경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음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H1) : 부패의 경험은 남자가 더 많을 것이다.

가설2 (H2) : 부패 경험에서 제공한 금품 등의 규모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수준과 긍정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부패 수준의 인식 차원에서는 부패가 얼마나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흔히 사용한다. Melgar, Rossi & Smith (2010)는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ISSP)의 2004 Citizenship 서베이 자료를 이용, 인구 통계학적 요인들의 부패 인식 효과를 분석하면서, '경험에 비추어, 부패가 공공서비스에 얼마나 널리 확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 물었고, 여자가 남자보다 부패 수준이 더 높다고 대답하였다. 반대로 교육수준은 높을수록 부패 수준은 더 낮다고 인식했다. Melgar, Rossi & Smith (2010: 123-125)는 그 이유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이 보다 유복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경향이 있다. 그래서 사회나 다른 사람들을 보다 호의적 시각에서 보기 때문이

라고 설명한다. 이들의 설명을 소득에 적용하면, 저소득층일수록 사회 비판적이고, 자신의 낮은 소득의 원인을 부패의 보편적 존재에서 찾게 되어, 사회가 보다 부패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인구 통계학적 요인의 부패 존재 인식 영향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3 (H3) : 부패 존재에 대하여 여자일수록(H31), 연령이 낮을수록(H32), 학력이 낮을수록(H33), 월 평균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H34) 더 그렇다고 생각할 것이다.

기타 Sidani et al. (2009)은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survey)를 사용, 레바논 근무자들(Lebanese workers)의 성별, 나이와 윤리적 민감성(ethical sensitivity)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했다. 그 결과, 모든 상황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윤리적 이슈에 더 민감했지만, 남녀 간의 윤리적 민감도 차이가 유의한 것은 18개 상황 중 4개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윤리적 이슈에 민감했지만 18개 상황 중 6개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 차이가 적어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Radtke (2000)는 51명의 회계사를 대상으로 성별이 개인 또는 비즈니스 차원에서 윤리적으로 민감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했는데, 16가지 중 5가지 상황에서만 남녀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가설 3은 인구 통계학적 요인들이 부패 인식 차원의 각 측정 항목과 관계없이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가정했으나, 위의 연구 결과에 비추어 다음 가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가설4 (H4) : 인구 통계학적 변수들의 영향은 부패 수준 측정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I. 조사 설계

1. 자료 수집과 절차

가설 검증을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의 2008년도 ‘한국 공공부문의 부패실태 추이분석’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조사 지역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 모집단은 매경 기업체 DB의 기업체(제조업, 건설업, 숙박 위생업, 사회복지업, 서비스업, 도소매업)와 자영업자(도소매업, 음식, 숙박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이, 미용업, 목욕탕업, 세탁업 등)로, 다단계 층화 및 할당표출로 표집 되었다. 지역별 인원의 배분은 비례 배분으로 이루어졌고, 기업체는 기획 및 총무부서 근무자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현대리서치가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 1:1 대인 면접 방법으로, 2008년8월 6일부터 9월 2일까지 조사하였고(장지원, 2008: 24-25), 최종 표본은 기업체 600명, 자영업체 400명, 총1,000명

이었다.

2. 지표 항목과 변수의 측정

TI의 GCB는 부패 수준을 일반 사람들의 경험과 인식(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corruption)에 대한 서베이 방법으로 측정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외부 청렴도 측정에서의 부패지수도 경험과 인식의 항목 구성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측정 문항과 한국행정연구원 서베이 질문 가운데 부패의 경험과 인식에 관한 공통적 측정 항목을 조사하여, 경험 2개, 인식 3개 문항을 가설 검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인구 통계학적 요인은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었던 성별, 연령, 학력, 소득으로 제한하였다. 한국행정연구원 2008년도 설문지의 부패 직접 경험 측정 항목은 금품 등 제공과 규모, 두 가지이다(장지원, 2008: 283-302). 첫째,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습니까?” 응답은 ‘있다’(1), ‘없다’(0)이고, 괄호 안 숫자는 코딩 값이다(이하 같다). 단 금품이나 향응 제공 경험에 관한 것이라도 종류나 시기 질문에 대한 응답은 범주형으로 통계적 검증에 적합하지 않아 분석에서 배제하였다. 둘째, “귀하께서는 위에서 응답하신 행정 분야에 지난 1년간 공무원에게 제공한 금품 등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응답자는 ‘300만 원 이상’ (6), ‘200만원 내외’(5), ‘100만원 내외’(4), ‘50만원 내외’(3), ‘30만원 내외’(2), ‘10만원 미만’(1) 중에서 선택하였다. 반면 인식 측정 지표항목 3 가지는 첫째, “귀하께서는 행정기관에서 민원 등의 업무처리 시 공무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은 ‘매우 보편적’(6)부터 ‘매우 예외적’(1)까지 6점 척도로 평가 하였다. 나머지 두 문항은 “떡값, 촌지 등 업무처리상의 관행이 존재한다.” “지연이나 학연 등 사적인 관계의 작용이 많다”로, ‘매우 그렇다’(6)부터 ‘전혀 아니다’(1)의 6점 척도가 적용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지수 조사에는 경험의 측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당 이익을 위한 기관 명칭이나 직위 이용을 묻고 있지만 한국행정연구원 질문에는 없어 포함시키지 않았다.

3. 분석 방법

가설 검증에는 척도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통계 기법이 사용되었다. 연구 문제는 인구 통계학적 요인의 부패 경험 및 인식과의 관계 및 이들에 대한 영향으로, 관계에 대한 분석은 변수가 범주형인 경우 Chi-Square(χ^2)와 스피어만 분석(Spearman analysis)을, 각 범주 간의 빈도나 평균값 간 차이는 χ^2 분석, T-TEST, ANOVA로 검증하였다. 설명력과 어떤 요인이 유의한가? 분석은 로지스틱(logistics)과 일반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다.

IV. 결과 분석과 시사점

1. 표본의 특징과 기초 분석

분석 표본의 성별은 남자 472명, 여자 528명으로 여자가 다소 많았다. 연령은 20대 185명, 30대 320명, 40대 285명, 50대 164명, 60대 46명으로, 30대, 40대 순으로 많았다. 학력은 중졸 이하 50명, 고졸 329명, 대졸 591명, 대학원졸 30명으로 대졸이 59.1%로 전체의 절반이 넘었다. 응답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만원 미만 5명, 50-99만원 11명, 100-199만원 133명, 200-299만원 309명, 300-399만원 297명, 400-499만원 140명, 500-599만원 78명, 600만 원 이상 27명으로 200만원과 300만원 단위가 60.6%를 차지하였다.

2. 인구 통계학적 요인의 관계 및 영향 분석 결과

1) 개별 요인의 관계 및 차이 검증

부패 직접 경험의 차원. 척도 문항은 금품 등을 제공한 경험의 여부와 제공한 금품 등의 규모, 두 가지이다. 전자는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습니까?”로 물었고, 응답은 ‘있다’와 ‘없다’로, 코딩 값은 1과 0이다. 전체 응답자 중 48명(4.8%)이 ‘있다,’ 나머지 952명은 ‘없다’고 응답했다. 인구 통계학적 요인이 직접 부패 경험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범주별 빈도수는 어떤 분포를 보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χ^2 분석을 하였다. 다음 <표 2-1>과 <표 2-2>가 그 결과를 보여준다.

<표 2-1> 직접 경험의 차원: 금품 등의 제공 여부 (N=1,000)

구 분		성별		연령					학력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 졸
제공경 험	있다 (48명)	38 (79.2)	10 (20.8)	3 (6.2)	18 (37.5)	17 (35.4)	9 (18.8)	1 (2.1)	0 (.0)	13 (27.1)	33 (68.7)	2 (4.2)
	없다 (952명)	434 (45.6)	518 (54.4)	182 (19.1)	302 (31.7)	268 (28.2)	155 (16.3)	45 (4.7)	50 (5.3)	316 (33.2)	558 (58.6)	28 (2.9)
χ^2 통계값 (Asymp. Sig. 2-sided)		20.674 (.000)		6.277 (.179)					4.063 (.255)			

* p<1.0; ** p<.05; *** p<.01

주: 단위는 명, 괄호 안은 %이다.

금품 등 제공 경험에 '있다'고 대답한 총 48명 중 남자가 38명(79.2%), 여자는 10명(20.8)명으로,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실제 금품 등을 제공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의 수가 전체 표본 요소 수 중 극히 일부라는 점도 특별하다. 연령은 30대(18명, 37.5%)와 40대(17명, 35.4%)가, 학력은 대졸(33명, 68.7%)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금품 등의 제공 경험과 유의한 관계는 인구 통계학적 요인 중 성별뿐이다(χ^2 통계값=20.674, df=1, $p<.001$). 남자일수록 금품 등의 제공 경험이 많았다. 따라서 부패 경험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가설1 (H1)을 채택하였다.

<표 2-2> 직접 경험의 차원: 금품 등의 제공 여부 (N=1,000)

구 분		월 평균 소득							
		50 미만	50-99	100-199	200-299	300-399	400-499	500-599	600 이상
제공경험	있다 (48명)	0 (.0)	0 (.0)	4 (8.3)	7 (14.6)	23 (47.9)	5 (10.4)	8 (16.7)	1 (2.1)
	없다 (952명)	5 (.5)	11 (1.2)	129 (13.6)	302 (31.7)	274 (28.8)	135 (14.2)	70 (7.3)	26 (2.7)
χ^2 통계값 (Asymp. Sig. 2-sided)		17.335 (.015)							

* $p<.05$; ** $p<.01$; *** $p<.001$; 2-tailed tests.

주: 소득 단위는 만원이다.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300-399만원 응답자가 23명(47.9%)로 가장 많았다. 소득 수준과 금품 등의 제공 여부 경험과의 관계는 Chi-square(χ^2) 값 17.335($p=.015$)로 유의하다. 응답자가 자신이 경험을 정직하게 얘기했다고 가정한 경우, 지난 1년간 공무원에게 금품 등의 제공은 소득 수준과 일정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금품 등 제공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 분포는 '없다'고 한 것보다 최빈값이 보다 오른쪽에 위치한 모습이다.

부패 직접 경험의 또 다른 척도는 제공한 금품 등의 규모에 관한 것으로, "귀하께서는 위에서 응답하신 행정 분야에 지난 1년간 공무원에게 제공한 금품 등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라고 묻고, '10만원 미만'부터 '300만 원 이상' 중에서 하나로 응답하였다. 코딩 값은 각각 1부터 6이었다. 금품 등의 규모는 서열척도(ordinal scale)로 가정하여, 관계 및 범주 간 평균 값 차이 검증을 하였다. 금품 등을 제공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48명으로, 분석은 이들에 제한되었다. 관계분석에서 성별은 'Chi-square값', 나머지는 비모수(non-parametric), 즉 스페어만 상관분석(Spearman rank order correlation analysis)을 하였다. 차이분석은 성별은 T-TEST, 나머지는 ANOVA를 실시하였다. 성

별 간 차이 T-TEST는 두 모집단의 분산이 동일한지 보고자 Levene 검정 후, 등분산의 가정(F=2.060, Sig.=.158)에 따라 검증하였다. 다음 <표 3>은 그 결과를 보여준다.

<표 3> 직접 경험의 차원: 제공한 금품 등의 규모 (N=48)

구 분		평균(표준편차)	$\chi^2, \rho(t, F)$
성별	남자	2.97(1.52)	7.680 (.218)
	여자	3.10(2.03)	
연령	20대	3.00(1.00)	-.198 (1.037)
	30대	3.17(1.51)	
	40대	3.35(1.94)	
	50대	2.11(1.17)	
	60대 이상	2.00(.00)	
학력	중졸 이하	0(.0)	.109 (.179)
	고졸	2.77(1.79)	
	대졸	3.09(1.59)	
	대학원 졸	3.00(1.41)	
월평균 소득	50 미만	0(.0)	-.040 (.107)
	50-99	0(.0)	
	100-199	3.00(1.83)	
	200-299	2.86(1.35)	
	300-399	3.17(1.80)	
	400-499	2.80(1.30)	
	500-599	2.75(1.75)	
	600 이상	3.00(.00)	

*p<.05; **p<.01; ***p<.001; 2-tailed tests.

주1: 소득 단위는 만원이다.

주2: 관계(차이) 통계량은 성별은 $\chi^2(t)$, 나머지는 $\rho(F)$ 이다.

제공한 금품 등의 규모는 어떤 인구 통계학적 요인과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소득의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범주 간 차이도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설2 (H2) ‘제공한 금품 등의 규모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수준과 긍정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인식 차원. 부패 존재의 인식은 세 가지 척도 문항에 대한 것으로, 첫째 금품 등의 제공이 얼마나 보편적인가, 둘째 떡값, 촌지 등의 관행의 존재, 그리고 셋째는 지역, 학연 등의 사적인 관계의 작용이다. 첫째 질문은 “귀하께서는 행정기관에서 민원 등의 업무처리 시 공무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응답은 ‘매우 보편적’에서부터 ‘매우 예외적’까지로 각각 6에서 1로 코딩

되었다. 둘째의 떡값, 촌지 등의 관행에 대한 질문은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당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떡값, 촌지 등 업무처리상의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에 응답자들은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아니다’의 6점 척도에 답하였고, 코딩 값은 각각 6부터 1이었다. 성별은 ‘Chi-square값’ 과 T-TEST, 나머지는 스페어만 순위척도 상관관계 분석(Spearman rank order correlation analysis)과 ANOVA 검증을 하였다. 성별은 두 항목 모두에서 Levene 검정 결과 귀무가설이 채택되어(F=.509, Sig.=.476; 1.025, Sig.=.312), 등분산 가정 하에 T 검정을 하였다. 다음 <표 4-1>은 인구 통계학적 변수와 두 부패 인식 항목 간의 관계 및 차이 분석 결과이다.

<표 4-1> 부패 인식의 차원 (N=1,000)

구 분		금품 등 제공의 실태		떡값, 촌지 등의 관행의 존재	
		평균(표준편차)	$\chi^2, \rho(t, F)$	평균(표준편차)	$\chi^2, \rho(t, F)$
성별	남자	3.55(1.26)	6.082 (1.901)	4.34(1.11)	5.621 (.139)
	여자	3.70(1.23)		4.35(1.05)	
연령	20대	3.82(1.22)	-.114*** (5.439***)	4.45(1.11)	-.116*** (4.281**)
	30대	3.78(1.22)		4.46(1.05)	
	40대	3.47(1.24)		4.32(1.06)	
	50대	3.37(1.23)		4.07(1.11)	
	60대 이상	3.78(1.37)		4.26(.95)	
학력	중졸 이하	3.46(1.28)	-.054 (2.795*)	4.14(.81)	.046 (.693)
	고졸	3.78(1.20)		4.34(1.01)	
	대졸	3.58(1.26)		4.37(1.12)	
	대학원 졸	3.33(1.30)		4.30(1.24)	
월평균 소득	50 미만	3.00(1.73)	.002 (.508)	5.40(.55)	.010 (1.926)
	50-99	3.91(1.76)		4.27(1.68)	
	100-199	3.58(1.38)		4.20(1.16)	
	200-299	3.68(1.20)		4.41(1.08)	
	300-399	3.60(1.20)		4.28(1.03)	
	400-499	3.57(1.22)		4.37(1.08)	
	500-599	3.72(1.29)		4.55(.89)	
	600 이상	3.74(1.46)		4.15(1.26)	

*p<.05; **p<.01; ***p<.001; 2-tailed tests.

주1: 소득 단위는 만원이다.

주2: 관계(차이) 통계량은 성별은 $\chi^2(t)$, 나머지는 $\rho(F)$ 이다.

관계 검증에서는 연령만 금품 등의 보편적 제공, 떡값, 촌지 등 관행의 존재와 유의한 관계가 있다(각각 $\rho=-.114$, $p<.001$; $\rho=-.116$, $p<.001$). 나이가 젊을수록 두 항목 모두에 대해 더 그렇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차이 분석에서 금품 등의 제공이 보편적이라는 인식은 연령과 학력 범주 간에(각각 $F=5.439$, $p<.000$; $F=2.795$, $p<=.05$), 떡값, 촌지

등의 관행이 존재한다는 인식은 연령 범주 간에만(F=4.281, p<.01) 차이가 유의하였다. 금품 등의 제공은 연령뿐만 아니라 학력 범주 간 차이도 유의하나, 학력과는 선형(linear)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 상관관계는 유의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가설3(H32)의 연령이 낮을수록 부패 인식 두 문항에 대하여 더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가설만을 채택하였다.

부패 인식 측정의 마지막 문항 “지연이나 학연 등 사적인 관계의 작용이 많다”에, 응답은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아니다’로, 각각 6부터 1까지의 코딩 값을 부여하였다. 성별은 Levene 검정 후(F=.284, Sig.=.594), 등분산 가정에 따라 T 검정을 하였다. 다음 <표 4-2>는 그 결과이다.

<표 4-2> 부패 인식의 차원 (N=1,000)

구 분		지연·학연 등 사적인 관계의 작용	
		평균(표준편차)	$\chi^2, p(t, F)$
성별	남자	4.48(.96)	6.122 (1.373)
	여자	4.40(1.00)	
연령	20대	4.51(.87)	-.114*** (5.463***)
	30대	4.60(.95)	
	40대	4.38(1.02)	
	50대	4.26(1.03)	
	60대 이상	4.11(.95)	
학력	중졸 이하	4.28(1.03)	.081** (2.332)
	고졸	4.35(1.02)	
	대졸	4.49(.94)	
	대학원 졸	4.63(.93)	
월 평균 소득	50 미만	5.40(.89)	.018 (2.784**)
	50-99	4.73(1.10)	
	100-199	4.28(1.05)	
	200-299	4.45(.98)	
	300-399	4.46(.94)	
	400-499	4.51(.94)	
	500-599	4.58(.92)	
	600 이상	3.93(1.04)	

*p<.05; **p<.01; ***p<.001; 2-tailed tests.

주1: 소득 단위는 만원이다.

주2: 관계(차이) 통계량은 성별은 $\chi^2(t)$, 나머지는 p(F)이다.

관계분석에서 연령($p=-.114$, $p<.001$)과 학력($p=.081$, $p<.01$)이 유의하였다. 즉 연령은 낮을수록, 학력은 높을수록 지연이나 학연 등 사적인 관계의 작용에 대하여 더 그렇다

고 생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가설3 (H32) 연령이 낮을수록 더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가설 (H33) 학력이 낮을수록 더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은 기각되었다. 오히려 학력이 높을수록 더 그렇게 생각하였다. 차이분석에서는 지연이나 학연 등 사적인 관계의 작용에 대한 인식은 연령, 소득의 범주 간에 차이가 유의하였다(각각 $F=5.463$, $p<.000$; $F=2.784$, $p<.01$). 그러나 월 평균 소득은 범주별 부패 인식의 차이는 유의하였지만, 선형(linear)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p=.018$, $p>.05$).

2) 설명력 분석

부패 직접 경험의 차원. 응답자가 지난 1년간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 했는가 여부를 인구 통계학적 변수들이 얼마나 설명하는가? 금품 등의 제공 여부는 0과 1의 이변량 변수로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다음 <표 5>는 분석 결과이다.

<표 5> 부패 경험의 차원 (N=1,000)

독립 변수	종속변수: 금품 등 제공 경험의 여부				
	B	S.E.	Wald	Sig	Exp(B)
성별	1.386	.373	13.824	.000	4.000
연령	.144	.155	.862	.353	1.155
학력	.254	.285	.798	.372	1.290
소득	.222	.116	3.688	.055	1.249
Constant	-6.032	1.057	32.570	.000	.002
χ^2 통계값/자유도	27.557/4				
Sig	.000				

* $p<.05$; ** $p<.01$; *** $p<.001$; 2-tailed tests.

주: S.E.는 Standard Error이다.

검증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하였다(Chi-Square=27.557, $df=4$, Sig.=.000). 모형 적합도 확인을 위한 Hosmer-Lemeshow 검정 결과 유의 확률은 $0.460 > \alpha = 0.05$ (Chi-square=7.731, $df=8$, Sig.=.460)로, 유의 확률이 0.05보다 커야한다는 기준을 충족시켜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독립변수의 영향 분석에서는 성별만 유의하였다 ($B=1.386$, Wald statistics=13.824, Sig.=.000). 로지스틱 회귀계수의 우도(likelihood), 즉 사건 발생의 가능성은 $Exp(B)=4.000$ 으로 다른 요인의 값이 일정하다면, 성별이 남자인 경우 금품 등 제공 경험의 확률은 4배나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다른 변수들은 유의하지 않고, 독립변수 4개의 Pseudo R-Square Nagelkerke는 .085로, 높지 않았

다.

다음 금품 등의 제공 경험에 ‘있다’고 대답한 48명을 대상으로, 제공한 금품의 규모를 성별, 연령, 학력, 소득이 얼마나 설명하는가를 검토하였다. 인구 통계학적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쓸 때, 상호간의 높은 관련성이 의심되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진단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들의 공차한계는 .887부터 .983, VIF는 1.017부터 1.127이었다. 다중공선성은 공차한계(tolerance, 1-R²_i)가 1보다 크거나,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가 10이상이면 문제가 있다는 기준에 비추어(김계수, 2005: 253), 문제가 없었다. 다음 <표 6>은 분석 결과이다.

<표 6> 부패 경험의 차원 (N=48)

독립 변수	종속변수: 제공된 금품 등의 규모		
	B	Beta	T
성별	-.083	-.021	-.133
연령	-.312	-.177	-1.158
학력	.175	.056	.354
소득	-.055	-.041	-.269
Constant	3.715		1.883
F Value	.448		
Adjusted R2	-.049		

*p<.05; **p<.01; ***p<.001; 2-tailed tests.

회귀모형은 유지하지 않았다(F=.448, Sig=.773). 금품 등의 제공 경험을 한 응답자들의 경우, 인구 통계학적 변수들이 제공한 금품의 규모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함을 가리킨다.

부패 인식의 차원. 인구 통계학적 요인들이 부패 수준 인식에 관한 세 가지 측정 항목을 각각 얼마나 설명하는가? 위와 마찬가지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진단에서 공차한계는 0.694부터 0.932, VIF는 1.073부터 1.441로, 문제가 없었다. 다음 <표 7>은 분석 결과이다.

<표 7> 부패 인식의 차원 (N=1,000)

독립 변수	종속변수								
	금품 등의 제공			떡값, 촌지			지연·학연		
	B	Beta	T	B	Beta	T	B	Beta	T
성별	-.047	-.019	-.575	.032	.015	.447	-.084	-.043	-1.299
연령	-.178	-.158	-4.396***	-.122	-.125	-3.469***	-.088	-.099	-2.754**
학력	-.249	-.126	-3.355***	-.056	-.033	-.869	.079	.051	1.360
소득	.037	.038	1.164	.016	.019	.568	-.010	-.013	-.397
Constant	4.582		17.399***	4.714		20.593***	4.546		21.974***
F Value	6.308***			3.279*			4.706***		
Adjusted R2	.021			.009			.015		

*p<.05; **p<.01; ***p<.001; 2-tailed tests.

회귀모형 3개가 모두 유의하다(F=6.308, $p<.001$; F=3.279, $p<.05$; F=4.706, $p<.001$). Adjusted R2는 각각 .021, .009, .015로, 모형은 유의했으나 인구 통계학적 변수들의 설명력은 높지 않다. ‘금품 등의 제공’ 모형에서는 연령, 학력, ‘떡값, 촌지’에서는 연령, 그리고 ‘지연, 학연’에서도 연령이 유의한 영향변수임을 알 수 있다. 연령은 세 가지 모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인구 통계학적 변수 가운데 부패 수준 인식 차원의 척도 문항에 영향을 주는 안정적 변수로 판단되었다. 즉 부패 수준 인식 세 가지 측정 항목 모두에서 나이가 적을수록 행정기관에서 민원 등의 업무처리 시 공무원들에게 금품 등의 제공이 더 보편적으로 행하여지고, 떡값, 촌지 등 업무처리 상의 관행이 더 존재하며, 지연, 학연 등 사적인 관계의 작용이 더 그렇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반면 학력은 금품 등의 제공이 보편적이라는 것에서만 유의하나 영향의 방향은 부정적이었다. 즉 학력이 낮을수록 금품 등의 제공이 보편적이라는 데 더 동의함을 가리킨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해, 가설 (H33)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앞의 관계분석에서는 학력은 지연·학연 등 사적인 관계의 작용과 긍정적인 관계가 발견되어 가설 (H33)을 기각한 바 있다. 학력의 금품 등의 보편적 제공 실태와 지연·학연 등 사적인 관계의 작용에 대해서로 반대되는 인식 경향을 가리킨다. 즉 전자와는 부정적, 후자와는 긍정적이다. 이것은 인구 통계학적 변수의 관계 또는 영향이 질문 항목마다 다르다는 것이어서, 가설4 (H4)를 채택하였다.

3) 요약

분석 결과, 직접 경험의 차원에서는 금품 등의 제공 경험에 성별과 소득수준이 유의한 관계가 있었고, 설명력 분석에서는 소득만이 그러하였다. 그러나 설명력은 높지 않았다. 이로 미루어 금품 등의 제공 경험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할 것으로 해석된다. 부패 경험과 관련 제공한 금품 등의 규모에는 어떤 변수도 유의한 관계나 영향 변수가 발견되지 않았다. 부패 인식의 차원에서는 인구 통계학적 변수 가운데 연령만 금품 등의 보편적 제공 실태, 떡값, 촌지 등 관행의 존재, 그리고 지연·학연 등 사적인 관계의 작용 모두에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나이가 적을수록 세 가지 형태 부패의 존재에 대한 인식에서 더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학력은 지연이나 학연 등 사적인 관계의 작용이 많다는 것에만 유의한 긍정적 관계를 보였다. 학력이 높을수록 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설명력 분석에서는 금품 등 제공의 보편적 실태에서는 연령과 학력, 떡값, 촌지와 지연·학연에서는 연령이 유의한 영향 변수였다. 그러나 설명력은 어느 것에서도 높지 않았다. 나이가 어릴수록 부패 인식 측정의 세 가지 항목에 대하여 그렇다고 생각하고, 학력은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이 '보편적이다'에만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나, 방향은 부정적이었다. 즉 학력이 낮을수록 더 그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연·학연 등 사적인 관계 작용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서는 반대로 긍정적인 것이었다. 이것은 부패 수준 인식에서 측정 항목이 무엇인가에 따라 관계나 영향의 방향은 다를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3. 시사점

분석 결과는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 첫째, 부패 경험과 인식에 성별, 연령, 학력, 소득의 영향은 비록 크지 않았지만 유의한 관계, 집단 별 차이, 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 수준의 서베이 측정에 경험 및 인식 항목을 이용하는 경우, 인구 통계학적 변수에 대한 통제의 필요를 시사한다. 표출에서 매칭(matching)은 한 가지 방법이다. 부패 측정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인구 통계학적 요인을 기준으로 응답자를 비교 대상 표본에 같은 비율이 되도록 추출하는 것이다(Rubin & Babbie, 2008: 253-254). 하지만 공공기관들은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가 서로 다른 만큼, 이용자들 또한 인구 통계학적 특징이 다를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매칭은 오히려 표본의 대표성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구 통계학적 요인의 영향은 부패 경험 및 인식 차원 간, 그리고 부패 수준 인식 차원의 각 측정 항목 간에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경험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금품 등의 제공과 제공한 금품의 규모에 대한 영향 요인은 같지 않았다. 같은 인식 차원의 항목들이라고 하더라도 항목별로 인구 통계학적 요인들의 관계와 영향은 다른 것이었다. Deshpande (1997)도 인구 통계학적 요인의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영향은 비윤리적 행동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패 측정에서

어떤 항목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경험 및 인식 수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으로, 정확한 측정 및 비교를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통제의 필요를 시사한다.

셋째, 부패 경험 차원에서는 성별이, 인식 차원에서는 연령이 가장 유력한 영향 요인이었다. 그렇다면 인구 통계학적 요인들은 어떤 차원에 보다 더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부패 경험의 응답자는 전체 조사 대상자의 5%도 안 되어, 분석 결과는 우연에 보다 의존적이고, 그 만큼 결과의 일관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부패를 경험한 사람의 수가 과연 적은 것인가? 아니면 정직하게 응답한 사람의 수가 적은가도 알기 어렵다. 응답자가 경험과 인식 문항 모두에 똑 같은 정도로 용기 있고, 정직하게 대답할 것인가? 등의 의문도 생긴다. 서베이는 조사방법상의 특징상 불법 행위, 섹스 등 프라이버시 조사에 부적합하다. 불법적인 금품 제공은 반칙이다. 비도덕적이고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당사자만 몰래, 은밀히 하고 가까운 사이라도 드러내놓길 꺼린다. 그런데 서베이는 지난 1년 동안의 경험을, 직접 접촉의 경험을 가진 민원인 대상으로 전화 조사, 1:1 인터뷰를 하거나, 내부 직원 이메일 조사를 하는 것이다. 이때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고백이나 고해성사, 투서나 고발의 성격을 띠 수 있다. 대답한 경우라도 민감한 질문에 누가 더 용기 있고 대답한가, 정직한가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인구 통계학적 요인의 통제는 다시 이러한 문제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Ekin & Tezolmez (1999: 31)도 윤리적 판단, 인식과 인구 통계학적 요인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서베이(self-reported ethics survey) 방법의 적용은 응답자들로 하여금 정직하게 답하는 것을 가로 막고, 사회적 책임 반응 편향(social desirability response bias)을 촉발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진종순·서성아 (2007: 251-252)는 2004년과 2005년 한국행정연구원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에서, 인구 통계학적 요인들의 '금품 등 제공' 경험에 대한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검증했을 때, 2004, 2005년 분석 결과 특별한 이유가 없이 유의한 영향 요인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 차원의 측정 항목은 부패 수준을 가장 사실에 가깝게 측정할 수 있으나 피조사자 요인은 오히려 응답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통제의 필요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V. 결론

이 연구가 사용한 한국행정연구원 2008년도 부패실태 추이분석 데이터는 전국 15개 광역 자치단체 기업체와 자영업자를 모집단으로 했고, 1:1 대인면접 조사 방식으로 수집되었다(장지원, 2008: 24-25). 이러한 데이터 특성은 분석 결과의 일반화를 제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통계학적 변수들은 부패 측정 주요 지표 항목들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개별 조직의 실태 조사 차원이 아닌 기관간의 비교, 동일한 기관이라고도 하더라도 시차적 비교를 하는 경우, 이들의 영향에 대한 통제의 필요를 가리킨다.

Wilheim (2002: 222)은 국제기구, 컨설팅 회사, 연구기관들이 그 동안 부패의 정도를 숫자 값으로 계산하고자 발표해 왔지만, 누구도 그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바는 없다고 지적한다. Ko & Samajdar (2010: 508)도 국제적 부패지수들(international corruption indexes)의 경우, 비록 계속 개선되어 왔으나 종합지수(composite indexes) 계산에 여러 문제가 있고, 이들은 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 이용할 때 반드시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철저하고 체계적인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이 연구의 결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부패 수준 측정은 관찰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것으로, 정확한 측정 방법이 없다는 전체의 수용이 필요하다. 측정을 하는 경우, 용도의 한정도 요구된다. 측정 목적을 실패 파악 정도에 한정하는 것이다. 싱가포르 CPIB가 외국 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부패 경험을 묻는 것은 의견 조사(opinion survey)이다. 자국 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데 혹 공공기관이 뇌물이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는 않는가? 낮은 가능성이라도 보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ERC가 공직자의 뇌물이나 권한 남용 등을 조사하나 윤리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윤리적 위험의 진단 등이 목적이다. 지표체계의 타당도 검증을 마쳤고, '신뢰도 저해행위 방지 및 적발 시 제재'를 마련한 경우라도(국민권익위원회, 2010b: 21-26), 또 표본이 대표성을 갖는 경우에도 응답자 표본 인구 통계학적 요소의 영향에 대한 통제 이슈가 남는 것은 이 때문이다.

<참고문헌>

- 국민권익위원회 (2010a). 2010년도 공공기관 내부 및 외부 청렴도 질문지.
<http://www.acrc.go.kr>. 검색일자 2011.1.22.
- 국민권익위원회 (2010b). 201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안).
<http://www.acrc.go.kr>. 검색일자 2011.1.22.
- 김계수 (2005).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SPSS 아카데미.
- 장지원 (2008). 한국 공공부문의 부패실태 추이분석.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2008-11-1.
- 진중순·서성아 (2007). 부패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부패행위. 행정논총, 45(3): 233-257.
- 황성돈 (2004). 과학적 지식의 정치적 오용: 서울특별시의 민생관련 취약분야 반부패 지수 조사의 타당성에 관한 비판이론적 검토. 한국행정연구, 13(2): 242-272.
- Ameen, E.C., Guffey, D.M., & McMillan, J.J. (1996). Gender differences in determining the ethical sensitivity of future accounting professionals. *Journal of Business Ethics*, 15(5): 591-597.
- Browning, J., & Zabriskie, N.B. (1983). How ethical are industrial buyers? *Industrial Marketing Managers*, 12(4): 219-224.
- Callan, V.J. (1992). Predicting ethical values and training needs in ethics. *Journal of Business Ethics*, 11(10): 761-769.
- Chonko, L.B., & Hunt, S.D. (1985). Ethics and marketing management: An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13(4): 339-359.
- Deshpande, S.P. (1997). Managers' perception of proper ethical conduct: The effect of sex, age, and level of education. *Journal of Business Ethics*, 16(1): 79-85.
- Ekin, M.G.S., & Tezolmez, S.H. (1999). Business ethics in Turkey: An empirical investigation with special emphasis on gender. *Journal of Business Ethics*, 18(1): 17-34.
- Emerson, T.L.N., & Conroy, S.J. (2004). Have ethical attitudes changed? An intertemporal comparison of the ethical perceptions of college students in 1985 and 2001. *Journal of Business Ethics*, 50(2): 167-176.
- Ethics Resource Center (2008). *National Government Ethics survey - An Inside View of Public Sector Ethics*. Washington, D.C.: Author.
- Izraeli, D., & Jaffe, E.D. (2000). Are there gender differences in the ethics judgments of marketing managers? *International Journal of Value-Based Management*, 13(2): 159-172.
- Ko, K., & Samajdar, A. (2010). Evaluation of international corruption indexes: Should we believe them or not? *Social Science Journal*, 47(3): 508-540.
- McCabe, A.C., Ingram, R. & Dato-on, M.C. (2006). The business of ethics and gender. *Journal of Business Ethics*, 64(2): 101-116.
- McDaniel, C., Schoeps, N., & Lincourt, J. (2001). Organizational ethics: Perceptions of employees by gender. *Journal of Business Ethics*, 33(3): 245-256.
- Melgar, N., Rossi, M., & Smith, T.W. (2010). The perception of corru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22(1): 120-131.

- Mujtaba, B.G., & Kaifi, B.A. (2010). Afghan-Americans' awareness of business ethics: A study based on gender, age, and education. *Business & Professional Ethics Journal*, 29(1-4): 33-61.
- Nyaw, M.K., & Ng, I. (1994). A comparative analysis of ethical beliefs: A four country study. *Journal of Business Ethics*, 13(7): 543-555.
- Radtke, R.R. (2000). The effects of gender and setting on accountants' ethically sensitive decisions. *Journal of Business Ethics*, 24(4): 299-312.
- Riaño, J., Heinrich, F., & Hodess, R. (2010). *Global Corruption Barometer 2010*. Berlin, Germany: Transparency International.
- Rubin, A., & Babbie, E.R. (2008).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ork* (6th ed.). Belmont, CA: Thomson Brooks/Cole.
- Ruegger, D., & King, E.W. (1992). A study of the effect of age and gender upon student business ethics. *Journal of Business Ethics*, 11(2): 179-186.
- Serwinek, P.J. (1992). Demographic and related differences in ethical views among small businesses. *Journal of Business Ethics*, 11(7): 555-566.
- Sidani, Y., Zbib, I., Rawwas, M., & Moussawer, T. (2009). Gender, age, and ethical sensitivity: the case of Lebanese workers. *Gender in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24(3): 211-227.
- Sparks, J.R., & Johlke, M. (1996). Factors influencing student perceptions of unethical behavior by personal salespeople: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Journal of Business Ethics*, 15(8): 871-887.
- Swenson-Lepper, T. (2005). Ethical sensitivity for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issues: Examining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differences. *Journal of Business Ethics*, 59(3): 205-231.
- Tang, T.L., & Chiu, R.K. (2003). Income, money ethic, pay satisfaction, commitment, and unethical behavior: Is the love of money the root of evil for Hong Kong employees? *Journal of Business Ethics*, 46(1): 13-30.
-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08). *Bribe Payers Index*. Berlin, Germany: Author.
- Valentine, S., Godkin, L., Page, K., & Rittenburg, T. (2009). Gender and ethics: Ethical judgments, ethical intentions, and altruism among healthcare professionals. *Gender in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24(2): 112-130.
- Wahn, J. (2003). Sex differences in competitive and compliant unethical work behavior. *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y*, 18(1): 121-128.
- Whipple, T.W., & Swords, D.F. (1992). Business ethics judgements: A cross-cultural comparison. *Journal of Business Ethics*, 11(9): 671-678.
- Wilhelm, P.G. (2002). International validation of the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Implications for business ethics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Journal of Business Ethics*, 35(3): 177-189.

투고일자 : 2011. 02.14

게재일자 : 2011. 03.16